

‘여성 예능’ 잇단 출격...생각보다 안뜨네



‘비디오스타’ 격의 없는 속애기 ‘화제’
‘하숙집 딸들’ ‘언니들의 슬램덩크2’
시청률 2~3%대 추락...한계 드러내

2000년대 중반은 여성 MC들을 내세운 예능 프로그램들의 전성시대였다. KBS 2TV ‘해피선데이-여걸파티’나, SBS TV ‘일요일이 좋다-골드미스가 간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했던 탓일까. 이후 남성 MC들의 파워풀한 활약 속에 ‘여성 예능’은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7년, 여성 예능이지만 이제는 ‘여성’이란 꼬리표를 떼고 정면승부하고자 다양각색의 모습으로 스타트를 끊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변에야말로 기반을 제대로 다지지 않으면 두 번의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인지, 제작진과 출연진의 각오가 남다르다. <센 토크부터 걸그룹 도전기까지 새 예능 잇단 출격=> 지난해 7월 먼저 시작한 MBC에브리원의 ‘비디오스타’는 MBC TV ‘라디오스타’의 스피노프 격으로, 박소현·김숙·박나래·전효성을 내세운 스튜디오형 토크쇼다. ‘비디오스타’는 케이블 프로그램임에도 ‘라디오스타’ 못지않게 평소 TV에서 잘 만나볼 수 없었던 연예인을 게스트로 섭외, 격의 없이 속 얘기를 나누며 방송마다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상과 중에는 가장 꾸준히 여성 예능을 시도해온 KBS

2TV가 두 편의 신작을 내놨다. 화요일 밤 ‘하숙집 딸들’과 금요일 밤 ‘언니들의 슬램덩크2’다. ‘언니들의 슬램덩크2’는 시즌2이니 엄밀히 말하면 완전 신작은 아니다. ‘하숙집 딸들’은 이미숙 등 여배우 5명으로 시작했다가 멤버와 포맷 변화를 앞뒀다. 시작할 땐 ‘여배우’에 방점이 찍혔지만, 핵심은 나름 산전수전 겪은 ‘언니’들이 다 내려놓고 망가지며 ‘센 토크’도 불사한다는 데 있다. ‘언니들의 슬램덩크2’는 시즌1에서 호평을 받았던 걸그룹 도전기에 ‘올인’했다. 멤버도 원년멤버 김숙과 홍진경에 더해 배우 한채영과 강예원, 가수 홍진영, 공민지, 전소미가 새로 합류해 신선함과 노련함을 더했다. <약체라는 선입견은 어디서 비롯됐다=> 그러나 다양한 시도와 노력에도 여성 예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데다 케이블 채널이라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비디오 스타’는 논외로 하더라도, 새로운 두 예능은 아직 ‘약체’란 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하숙집 딸들’은 첫 회 5%대 시청률에서 2%대까지 추락했고, ‘언니들의 슬램덩크2’ 역시 5%대에서 3%대로 떨어졌다. 물론 이유는 있다. ‘하숙집 딸들’의 경우 여배우들의 망가짐은 가상이지만,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 산만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결국 윤소이는 스키출상 하차했고, 장신영 등 다른 출연진의 이탈설도 도는 상황이다. 포맷은 전면 개편을 앞뒀다. ‘언니들의 슬램덩크2’는 이미 했던 도전인 만큼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의견과 미션곡의 대중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이유보다 여성 예능이란 이름으로 묶여 더 혹평을 받는다는 데 있다. 그 프로그램 자체의 약

점을 논하기보다 “여성 예능이니까 이변에도 거기까지지” “여성 연예인들은 이미지 관리라느라 예능은 한계가 있지”하는 식이다.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남성 MC들을 내세웠다면, 반응은 좀 달랐을지 모른다. 일각에선 남성 시청자들이 여성 연예인에게 원하는 것은 점점 더 ‘섹시코드’인데, 예능 프로그램들은 그 코드를 소화하기에는 걸그룹 무대와 달리 방송 시간이 너무 길다는 해석도 있다. 때문에 ‘스토리’로 승부 보는 게 아니라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여성 전문 MC의 풀이 넓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효율성보단 진정성=> 감성과 대중성의 조화가 과제=> 이렇듯 대중의 선입견에, ‘유라인(유재석 라인)’이니 ‘구라인(이경규 라인)’도 없는 인력 풀 부족에, 맨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도 여성 예능에 대한 도전은 계속된다. 어떤 매력 때문일까. ‘비디오스타’의 이우정 PD는 11일 “여성 MC들이 토크 진행자로 나서면 남성 MC들만 있을 때와는 달리 편안한 분위기가 연출돼 게스트들이 속마음을 열게 된다”고 말했다. 남성 MC들은 편집 지점 등을 알고 그걸 활용해 녹화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반면, 여성 MC들은 녹화가 다소 길어지더라도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더 재밌는 토크를 끌어낸다는 설명이다. 이 PD는 “처음에는 1회 녹화가 6~7시간씩 길어지면서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지금은 진정성이란 무기가 됐다”며 “또 여성 MC들이 최근에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망가지 상대방의 긴장감을 낮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47년 뛰어넘는 협업...작은 울림 됐으면”

양희은·악동뮤지션 내일 ‘나무’ 발표

중견 가수 양희은(65)이 남매듀오 악동뮤지션(이찬혁 21·이수현 18)과 협업곡을 발표한다. 13일 소속사 웅달스에 따르면 양희은은 15일 싱글 프로젝트 ‘뜻밖의 만남’의 여덟 번째 곡으로 악동뮤지션과 작업한 ‘나무’를 선보인다. 악동뮤지션은 지금까지 양희은이 협업한 가수 중 가장 나이 어린 팀으로 양희은과 이수현은 47년의 나이 차이가 난다. 양희은은 이날 SNS를 통해 “저희 마음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드리길 기원합니다”라고 신곡을 소개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뜻밖의 만남’ 프로젝트에는 지금까지 윤종신, 이적, 이상준, 김창기, 강승원, 김반장 등이 참여, 작사·작곡·프로듀싱까지 함께하는 방식으로 주목받았다. /연합뉴스

지역의 시각으로 호남 민심 살펴본다

KBS ‘리얼토크 날’ 오늘 첫 방

KBS광주방송이 전국 현안을 지역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토포 프로그램 ‘리얼토크 날’을 14일 새롭게 선보인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광주·전남에서도 ‘장미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대권 유력 후보들은 5·18묘역을 찾아 지마다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호남 소외’를 해결하겠다고 ‘호남 민심’ 쟁탈전을 펼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7 대선 향방을 가를 호남 민심의 저변을 살피고, 호남 정치의 정체성을 찾아보자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KBS 1TV에서 전파를 타며 크게 전국 이슈를 살펴보는 기회 토포와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현안 토포로 나눠 진행된다.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고정 사회자로 나서며 매주 다양한 패널들이 참여해 현안을 짚는다. 첫 방송은 ‘호남이 뭐길래?’를 주제로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영덕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최이성 참여자치21 운영위원장, 김석 순천 희망소를 주민자치연구소장을 비롯해 김광진 전 국회의원, 이준석 바른정당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 등 청년 정치인들이 참여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TV 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불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TV블로그 꿈지락 30 아침연속극 (아이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 만만	30 MBC 생방송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5 감성애니 하루 2(재)	00 월화드라마 (완벽한 아내) (재)	00 월화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12	05 하숙집 딸들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세상발전 유레카 스페셜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송터(재)	25 생생정보 스페셜	20 꾸러기 식사교실 50 텔레몬스터	55 닥터 365
2	00 2017 대선 더불어 민주당 후보자 경선토론	00 KBS 뉴스타임 10(대10시)(재)	00 중계방송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토론회	00 2017 대선 더불어 민주당 후보자 경선토론
3	30 코리아인포그래픽 플러스(재)	00 자동차부착성 위키 2 30 TV 유치원 2	30 리얼스토리 눈 55 응가 쇼맨 2	30 영재발굴단(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리얼토크 날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1대100	50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시사기획 창 55 송터	00 월화드라마 (완벽한 아내)	00 월화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00 월화드라마 (피고인)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하숙집 딸들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강연 100℃(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40 금쪽같은 내 새끼(재)	15:20 우주탐험가 챗	20:50 세계테마기행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자연의 색 서호주)	10:30 한국기행(재)	15:35 모피와 친구들	<은빛 실연의 전설 중국 네이밍구 2부 겨울왕국 건너 이야기>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우영 냉이튀김과 우영 완자튀김)	15:45 시계마을 티키펍!	21:30 한국기행
<내 맘대로 산다-그녀들의 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두다다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남도애 가다 2부 봄이 오는 길목에서, 내도>
07:00 레이디 비그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재)	17:15 열마 개투리	21:50 EBS 다크프라이
07:30 로보카 폴리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글로벌 인제전쟁 2부 인제의 블랙홀, 미국>
07:45 출동! 슈퍼맘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 책대로 한다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8:00 당동당 유치원1~2	13:40 장수의 비밀(재)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4	23:35 EBS 스페셜 프로젝트 - 책대로 한다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4:30 레이디비그	19:00 너티너츠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5:00 요술 상자	19:30 EBS뉴스	24:30 한국영화특선 (아는 여자)
09:15 융합한 소망차 레이	15:05 내 친구 아서	19:55 극한직업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릴리핀 배나나 농장>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4일(음 2월 17일 庚子)	
子	48년생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할 국세에 놓여 있다. 60년생 표준과 전형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겠다. 72년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만 난국을 풀 수 있을 것이나. 84년생 관계를 개선한 예기치 못한 기회들과 접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5, 63	午	42년생 총동하게 되어 있다. 54년생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자. 66년생 말하지 않아도 상대 역시 다 알고 있느니라. 78년생 치열함의 강도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90년생 골격을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2, 26
丑	49년생 성심을 다 한다면 진행되는 성취도가 무난할 것이다. 61년생 매우 허망한 일이 있을 수다. 73년생 머지않아 진면모가 드러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85년생 거의 비슷한 정황이 단순 반복되면서 지루하리라. 행운의 숫자 : 06, 09	未	43년생 다시 시작된다. 55년생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음을 알라. 67년생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면 곤란해질 것이다. 79년생 불변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책이다. 91년생 용기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83, 32
寅	50년생 당해 문제가 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겠다. 62년생 전체적인 흐름에 함께할 필요가 있다. 74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 부작용을 줄인다. 86년생 예상과는 달리 너무 쉽게 끝나버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5, 99	申	44년생 다 끝나는 마당에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치 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 56년생 부질없는 일에 매달린다면 낭비이다. 68년생 복합적인 효과를 보는 위상이다. 80년생 꿩 먹고 알 먹는 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8, 04
卯	51년생 융통성을 발휘하여 과격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 63년생 발 빠르게 대응 조치하면 문제점은 해결될 것이다. 75년생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행한다면 불변함은 잃을 것이다. 87년생 한꺼번에 물리는 형태이다. 행운의 숫자 : 50, 74	酉	45년생 여러 가지가 보이겠지만 일부만 유익할 뿐이다. 57년생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전면에서 나서는 형상이니 대응해 불만된 동세이다. 69년생 이를 수 있는 조건이니 놓치지 말라. 81년생 최근의 것이 가장 유력하다. 행운의 숫자 : 39, 82
辰	52년생 기본 방향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다. 64년생 가장 일반적인 것이 무탈하리라. 76년생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느니라. 88년생 진용이 흐트러진다면 회의가 클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51, 63	戌	46년생 관건이 될 만한 핵심 가치에 주목하라. 58년생 날날이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70년생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만 결정적인 시기를 포착할 수 있다. 82년생 자신의 정서와 부합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9, 89
巳	53년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가 스스로 찾아 올 것이나. 65년생 직심한 바와 행동이 시종일관 일치해야 성취하리라. 77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소신껏 행하라. 89년생 침착하게 들어 보면 놀랄 일도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4, 64	亥	47년생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실행은 신속히 하라. 59년생 원인과 과정을 잘 따져 보아야 대책이 마련 될 것이다. 71년생 진보는 있지만 무탈한 하루가 될 가능성이 크다. 83년생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가 있었다. 행운의 숫자 : 04, 09